

# 학父母를 위한 性教育

金 貞 泰

家族計劃研究院 首席研究官·醫博

성교육이란 사람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생활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원래 성은 특별히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히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왔고 또 실제로 그러하여서 배우지 않고도 자연히 알게 되었었다. 그것은 마치 어린이가 자라나면서 밥을 먹을줄 알고 대소변을 가릴줄 알게 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어느 조사에 의하면 남자 아이가 10세가 되면 임신 성교 자위행위 등에 대해 47~64%나 알게 되고 14세가 되면 92% 이상이나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습득한 지식들은 반드시 옳지만은 않고 많은 오식(誤識)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때로 불필요한 기우를 하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성에 관하여 교육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기성인들의 태도는 그들이 갖는 성에 대한 태도자체에 기인되고 있는 것인데 봉건주위의 배경을 갖는 경우를 포함하여 불교나 기독교 등 많은 종류의 종교에 있어서 생식의 뜻을 갖지 않는 성행위는 죄악인 것으로 규정되어 오므로서 성은 죄악(罪惡)이고 불결한 것이며 또 수치스러운 것이라는 죄악시 불결시 등의 태도가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은 죄악이고 부끄럽지만 인간이 생활하는데 필요악(必要惡)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되도록 알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문명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많은 것이 변하여 왔고 현대문명은 사람들의 성에 대한 태도도 변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이끌게 되었다. 즉, 남녀평등 또는 성의 해방이란 주장들이 그것들인데 남녀평등으로 인해 이제까지는 주로 집안 안에서만 생활해 왔던 여성들이 대거 사회

에 진출하여 교육을 받거나 직장을 갖게 되므로서 사회에 노출되어 갔고 일방적으로 남성의 지배를 받아 오던 위치에서 평등을 주장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성의 해방이란 개념도 문제거리가 되었다. 이러한 사고방식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이 매스컴으로 매스컴은 남녀 평등에 입각한 성의 문제들을 선동적으로 화제로 삼게 되었고 과거에는 은폐되어 왔던 많은 성에 관한 문제들이 일반에게 자극을 주게 된 것이다.

한편 이러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라는 현상의 발전에 비한다면 남녀의 성에 대한 태도는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즉, 과거로부터 남녀에게는 성행위에 대한 기준에 차이가 있게 적용되어 왔었고 이 기준은 현재도 사람들 간에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 느낌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남성들은 결혼과 관계없이 즉, 결혼하기 전에도 또 결혼하고 나서도(부인이 있어도) 비교적 자유롭게 한 명 이상의 여성과 성행위를 할 수 있다는데 비해 여성은 혼전에는 순결하여 처녀로 있어야 하고 결혼 후에는 수절을 하여 한 남성만을 섬겨야 한다는, 결코 남녀가 평등하다 할 수 없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던 것으로 이 기준은 현재 이 사회에 있어서도 크게 달라진 바가 없이 취급되고 있다는 말이다.

남성들이 이러한 기준으로 여성을 대하게 되는 경우 여성들 측에서 순결을 지키고 수절을 하 기란 쉽지 않고 모순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이 모순을 창녀(娼女)라는 직종의 여성들이 대부분 해결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양가의 부녀자들은 집안에서만 기거하여 난을 피해 왔었다. 남녀평등 뿐 아니라 인권을 존중한다는 견지에서 차츰 이 특수직종이었던 창녀라는 직업이 적어지게 되면서 우리 사회에 성과 관련된

많은 사건들이 눈에 띄게 되었는데 차차 사회로 진출해온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즉, 남성들이 갖는 성에 대한 기준은 변하지 않고 있고, 창녀라는 직종은 없어졌고 반면 많은 여성들이 이 남성들 앞에 노출되어 있다는 현상 등은 곧 많은 성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는 조건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하나 잊을 수 없는 중요한 점이 있다면, 성은 특별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부모는 물론 학교에서도 또는 기타 누구도 성에 관한 지식을 주지 않았었다는 점인데 현재 야기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의 성문제들을 추궁해 따지고 보면 반드시 부모의 무지 내지는 학교 교육의 무책임 등을 느끼게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 마디로 말하면 현대문명의 발전이 성문제에 많은 변천을 가져 오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과도기적인 상황에 있어서 확고한 방향이 제시되어 지고 있지 않으며 부모의 자녀에게 대한 태도 또는 남성과 여성의 성에 대한 기준의 차이 등은 급격한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데에서(물론 변화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는 뜻은 아니다) 아무런 저항력이 없이 사회로 진출한 여성들 간에 많은 문제점 등이 야기되고 있고 이들은 나아가 사회의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지고 있으며 성문제로 방황하는 사회상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문제들을 방황만하고 있을 시기는 이미 늦었다고 볼 수 있으며, 어떠한 형태로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함이 마땅한데, 원래 성교육은 부모, 학교 및 사회가 공동으로 다루어야 하는 과제인 것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성교육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뜻에서 어렵다. 첫째, 부모의 성에 대한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 자라왔던 죄악감이 쉽게 변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어렵지 않다.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차마 교육을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둘째는 이러한 죄악감과 더불어 성문제는 계속 은폐되어 왔었기 때문에 부모자신들이 더구나 어머니들은 성에 관해 많은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있고 때로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지식도 오식일 경우

가 많아서 자신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직면하고 있는 당면 문제점들은 분명히 부모의 깊은 관여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모의 처지에서는 대략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유의를 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 1. 자녀의 교육을 위해 부모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한다.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방향은 항상 뚜렷하지 않고 공자는 40에 불혹(不惑)이라 하였으나 현대인들은 60이 되어도 불혹이 될 수 없더라도 실토를 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자신의 사는 길이 분명하지 않았을 때 자녀에게 그 길을 보여 주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은 당연한데 그러나 어려우면 어려운데로 무엇인지 길을 제시해야 하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최근 많은 학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은 학교에 보내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여 부모로서는 그 뒷받침을 하는 것이 성의를 다 하는 자녀교육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에 있어서 진정한 뜻의 가정 교육은 심히 등한시 되어 전혀 그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고 있던지 혹게울리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갖는 부모의 태도는 하루 속히 시정되어야 함은 물론인데, 학부모는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철학을 추구해야 하는 것과 같이 자녀를 위한 교육을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함이 마땅하다. 특히 시시로 변해오는 문명의 발달을 자녀들은 어떻게 받아드려야 하는 것인지 학교 교육에 있어서와 같이 부모들은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지 부모의 태도도 항상 변할 수 있는 처지에서 고려되어 져야 한다. 인간사회의 근본적인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자녀들은 분명히 자극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다. 특히 성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는 그 세대의 차이를 더욱 크게 느끼도록 주변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부모들 자신의 계속된 교육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할 수 있다.

### 2. 자녀의 교육은 자녀를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분명히 여러 면에서 세대의

차가 있다. 또 문명은 그것이 좋은 방향이고 아니고 간에 변천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 환경은 항상 변하고 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여 교육하는 경우에 그 척도는 언제나 자신의 지식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한데 그것은 왕왕히 자식들에게 세대의 차를 느끼게 하고 있고 조건없이 복종하기는 어렵다는 느낌을 주게 된다. 특히 성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나라에서도 해방 후 서구문명의 영향을 받아 크게 변하였고 또 변하고 있는 것이므로 성장한 배경의 차이로 인한 세대의 차이는 크고 때로 구연한 부모의 말씀은 젊은 세대에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세대 간의 대화가 어렵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더구나 사춘기의 자녀들은 사춘기의 특성에 의해 부모와의 대화를 거부하게 되는 경향에 있으므로 이때를 기하여 영영 정신적인 교환이 없어지게 되기도 하여 문제가 된다. 따라서 I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모는 끊임없이 자신을 교육해야 하는데 그 교육은 자식을 위한, 자식 편에서 생각하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대 간의 차이는 여하한 경우에도 있게 마련이므로 최대한으로 접근을 한 자세에서도 물론 간격은 있게 될 것이다. 다만, 마음가짐 자체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자식이 사는 것”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에게는 자식은 언제나 어린 것으로 보이는 것이 보통이고 그 성장에 대해 쉽게 납득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자식은 분명히 성장한 것이므로 현실을 명확하게 보고 닦쳐올 그들의 장래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을 한다는 견지에서 자신의 완고한 생각만을 고집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들이 충분히 성숙하였음을 인정하는 데서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 3. 성에 대한 태도를 시정해야 한다.

성은 죄악이다. 불결하다 하는 태도를 시정해야 함은 필연적이다. 사회의 변천을 등지고 생활할 수 없다는 뜻에서 그러한데, 따라서 재래식의 죄의식에 의한 태도를 고집하는 태도는 사회발전을 역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죄의식을 없애고 성을 인정하므로써 성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얻어 성장하는 자녀의 성의 발달을 알고

지도하는 태세를 갖추어야 하는데 직접 지도하기가 어려운 경우 적어도 이해를 하는 태도는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 4. 교육은 일상생활에서 해야 한다.

부모로서 자녀의 성교육을 직접 담당하기 어렵다 함은 모든 면에서 아직도 미숙하다 할 수 있는 우리 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니고, 성이 해방되어 자유롭다는 나라들에 있어서도 그 어려움은 같다. 교육에 있어서 직접 성에 관한 대화를 나누기는 어렵고 물론 시범을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나 부모가 해야 하는 교육은 이러한 것이 아니고 바로 부모의 일상생활 그 자체가 교육인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성을 죄악으로 생각하지 않을 경우에 부부가 할 수 있는 접촉의 정도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내 보여 줄 수 있는 것으로 성을 죄악시키는 데서 갖는 지나치게 엄숙한 태도는 없을 수 있고 이러한 자연스러운 노출은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병에 노출시키려는 예방주사의 원리와 같아서 부부는 마땅히 그 정도의 육체적인 접촉(정신적인 접촉은 말로서도 할 수 있다)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남녀”이다 하는 교육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존경하는 부모님들이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이 죄악이고 불결할까 답은 없다고 알 것이고, 불필요하게 은폐하려는 데서 생기는 호기심도 훨씬 적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밖에서 들었던 또는 있었던 성과 관계되는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털어 놓을 수도 있게 될 것이다. 부모가 좀더 자녀의 교육을 의식하였을 경우, 일상의 대화 속에서 제3자의 성에 관한 얘기 끼리를 화제로 삼음으로서 자연스럽게 교육이 될 수도 있고, 부모의 이러한 태도는 있을 수 있는 성관계의 사고를 미리 방지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시대는 변천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앞장을 서는 태도로 임하므로써 자신들의 부부생활을 합리화시켜 죄의식을 일소할 수도 있고, 이는 동시에 자녀를 위한 교육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젊은 세대와 거리낌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을 때 부모자신들이 젊은 세대에게 배울 수 있는 사실들이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